

희귀 고미술의 귀환展

서울 프레스센터 대전시장서 12일까지



신라금동소형인왕상.

우리가 흔히 보는 불상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중엄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진 속 불상의 모습은 중엄한 부처님 모습이 아닌, 마치 로마시대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정교하고 뛰어난 금속공예 기법을 엿볼 수 있는 금동인왕상은 신라시대(8세기 경)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 크기는 약 2cm에 불과하다. 또한 흰 곱돌재질에 자연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납석관음좌상(고려시대 12~13세기)도 매우 희귀한 불상이다.

이처럼 우리가 여태껏 국내에서 보지 못한 희귀한 미술품 300여 점이 8월 30일~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대전시장 '고미술의 귀환(歸還)과 향유(享有) 전'을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회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중 유출 또는 반출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고미술품을 한데 모으고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아시아기자협회, 흥명보장재단, 고미술 전문화랑 '유심재'가 공동개최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주요 미술품들은 고미술 전문화랑 '유심재'의 정진호 대표가 직접 수집한 작품들이다. 정진호 대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고미술품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시절에 유출 또는 반출된 것들이다. 이번 전시는 이런 사실을 정부나 국가 차원을 넘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차원에 맡기고, 관심과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된 자리"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년 간 수백 차례의 해외 답사를 통해 전 세계 구

석구석을 누비며 훼손되거나 멸실될 뻔한 한국의 고미술품을 수집해 왔다. 정 대표는 지구촌 곳곳의 개인 소장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은 물론, 세계 유수의 경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작품들을 수집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아직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물을 발견하고도 국내에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미술품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시아기자협회 아이반 립 회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한국 고미술의 귀환은 한국 정신문화의 귀환"이라며 "지금껏 서구 시각에서 바라보던 외래적 미감에서 벗어나 아시아 고유의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적 자신감을 되찾아 이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흥명보 올림피쿠스대포 감독이 설립한 흥명보장재단에 의해 어린이 양육자 및 취재 중 순직한 기자 유족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흥명보 감독은 "해외에서 떠돌던 한국의 고미술품과 중국의 유물들이 한 자리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숨 쉬고 있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하다"며 "무엇보다 전시회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성낙승 총장 등 학교임원진이 8월 29~9월 3일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개산종장 성운 스님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불광대학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성운 스님은 세계 각지에 200여 사찰을 장건하고 대만에 불광대학과 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이은정 기자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조계종 복지재단 '전국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적인 불교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월 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마곡사 신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은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월 21일 마곡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마곡사 신도 등 100여 명은 불교자원봉사 기본교육과정으로 최종한 복지재단 사무국장의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이은희 복지재단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이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사찰자원봉사 활동사례' 등의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았다.

불교계의 자원봉사활동은 1995년 복지재단이 설립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 및 대도시 중심과 일부 사찰에서만 활동을 전개해 그 한계가 있었다.

복지재단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세 지역에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2004년부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개한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찰별 자원봉사순회교육, 불교자원봉사 우수활동사례공모전, 불교자원봉사단체제 등을 진행해 왔다.

불교자원봉사센터는 △충청권-마곡사·수덕사 △호남권-선운사 △영남권-직지사에 설치되며 소속 사찰 신도들은 자원봉사교육을 받게 된다.

복지재단은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은 서울 및 대도시 중심, 몇몇 사찰의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찰신도 조직을 자원봉사활동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02)723-5101 이은은 기자

성운 스님 금강대 명예박사

성낙승 총장 등 대만 방문... 불광대학 교류도 협의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종정) 성운 스님(사진)이 금강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성낙승 총장 등 학교임원진이 8월 29~9월 3일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개산종장 성운 스님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불광대학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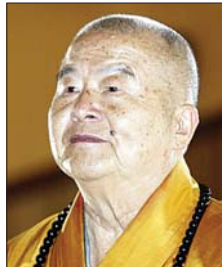
성운 스님은 세계 각지에 200여 사찰을 장건하고 대만에 불광대학과 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 등 4개의 종합대학 설립했다. 또,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육유원(고아원), 불교진료소 등 의료기관, 도서관, 복지기관 등을 설립하고 교육을 비롯한 포교·문화·복지사업을 펼쳐 왔다.

금강대는 "성운 스님은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생 존중과 포용, 평등과 평화 등의 이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인간불교'를 세계 각지에 전파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대는 2005년 미국의 서래대학(2005년), 2007년 대만의 불광대학·남화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성운 스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교신문 2010년 9월 1일 10면 참조



성운 스님

WFB 2012 대회 한국 개최 요청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회장 프라담 바라자리아)가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대회의 한국 개최를 요청해 와 개최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팜롬 타이어리(Phallop Thaiyam) 세계불교도우의회 사무총장은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를 한국에서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을 대신해서 예방한 팜롬 사무총장은 "1963년 한국에 지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한국 불교는 전세계 불교의에 큰 힘을 실어왔다"며 "조계종단은 물론 전 한국 불교가 힘써 세계불교도대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의 한국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의 한국 개최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사항이기도 해 개최 성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팜롬 사무총장은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제25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 초청장을 자승 스님에게 전달하고 기념 법문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세계 146개국에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창설됐고 한국은 1963년부터 활동해 왔다. 2008년 일본에서 열린 제24차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는 김의경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WFB 최초 여성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WFB 사무총장 팜롬 타이어리는 8월 2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제26차 WFB 대회 한국 개최를 요청했다. 사진은 팜롬 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성호 스님 별빈

자승 스님 당선 무효 소송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성호 스님(진안 금강사)이 별빈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6차 재심회결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성호 스님은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 제기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사회법에 제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비위, 중무행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징계 회부됐다. 지난 4월 초심회결원에서도 스님은 별빈 판결을 받았다.

성호 스님은 초심회결원에 이어 재심회결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종섭 기자

불교TV IPTV서비스

불교TV를 IPTV로도 볼 수 있게 됐다. 불교TV(사장 구본일)는 "8월 16일부터 KT COOKTV를 통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외에도 KT에서 COOKTV를 시청하면 시청자도 불교TV를 볼 수 있게 됐다. 조종섭 기자

금정중 명정관 착공

조계종립 부산 금정중(교장 현익재)은 8월 25일 교내에서 다목적 강당인 명정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명정관은 2012년 2월까지 32억여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23㎡에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강당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2층에는 급식실과 식당, 3·4층에는 700명 수용의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게 된다. 행사에는 이사장 계전 스님, 범사 주지 정여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업장소멸 법륜대 사찰경제 위해...

"평생 등 창안" 부처님 한분 한분 시주자 명단 청자에 투시되어...

사전에약 실시!!! 사찰 경제 깨우는

1. 시주자 명단 예비 부착. 실 크기 사진(150cm×60cm) 표구하여 드립니다.
2. 상감청자 코끼리(양수)를 설판자 및 부부명단 기입하여 드립니다.
3. 황금 빛 금강경(선망부모 명복 발원 및 가족 소망 기입). 복장경 300권을 드립니다.

** 상기 증정품은 예약 방문하시는 분에 한합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상용-선안배의의기술
■ 재질명: 순금세발안배의의기술
■ 재질: 대만산 순금세발안배의의기술
■ 높이: 110cm
■ 직경: 45cm
■ 무게: 900kg
■ 무게: 25kg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연중4회(정월, 봄, 여름,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